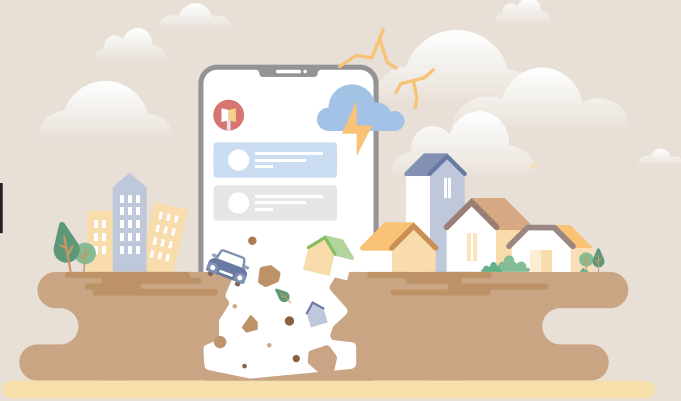


# 지진정보의 수신지역 사각지대 줄이기



최정호 지진화산국

지난해 국내 규모 3.0 이상 지진이 8회, 올해 벌써 7개월 만에 규모 3.0 이상 지진이 9회나 발생하여 국민들은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이 신속한 지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및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지진정보 전파를 확대하는 계획을 소개하고자 한다.

## 지진피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노력

지진조기경보와 관련한 앞선 연구에 따르면, 지진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지진파(S파)가 도달하기 전 약 5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여 인명피해를 약 8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기상청은 지진관측망 확충, 분석체계 개선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지진 관측 후 10초 이내로 신속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을 목표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책임 기관 등 과 협업하여 지진 통보 후 1초 내외로 중간 단계 없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중에 있다.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2017년부터 지진 발생 시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광역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진정보 제공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도 연계를 진행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지진정보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광역지자체에서 자체 운영중인 홈페이지, 앱(App), 문자메시지(SMS), 마을방송,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통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연도별 광역시도 연계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역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	세종, 전남	대구, 제주, 충남	경남, 경북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연계율	23.5%	29.4%	41.1%	58.8%	70.6%	100%

## 정보수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대상으로 지진 자동음성방송 실시

지진통보 시 휴대전화나 TV 등 다양한 매체로 지진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보수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 정보전달 방식 이외의 대응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기상청-교육청-학교 간 연계를 통해 지진통보 시 기상청으로부터 지진정보를 수신하여 자동으로 학교 내 방송으로 지진발생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한 자동음성안내가 이루어지는 시범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5개 교육청 및 45개 학교에 중계시스템과 지진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연계시범서비스를 구축 완료함으로써 총 14개 교육청 및 190개 학교에 직접연계가 구축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전국 17개 교육청과 연계를 완료하여 전국 학교로 지진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학교 대상 지진정보 전달체계 개념도



## 다양한 전달 매체로 지진정보 제공 확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터미널, 백화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민방위경보 단말장치에 지진정보를 전달하여, 시민들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지진재난으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긴급재난문자, TV 자막 방송, UHD방송, SNS, 앱,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진정보 수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매체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